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실전 2회, p.182)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꺾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술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짹짹한 설움을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뒤켠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찹.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냐
-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랴

→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꺾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술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짹짹한 설움을 빨았더냐.

→

아침은 항상 우리 뒤켠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찹.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쉰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냐

→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실전 2회, p.182)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라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꺾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손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짝짝한 설움을 빨았더냐.

아침은 항상 우리 뒤켠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찹.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에랴.

우리는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흰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랴.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냐

- 기형도, 「가을 무덤 - 제망매가」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철철 술을 부어주라
→ 우리는 살아 있는 사람의 얼굴에(그 얼굴이 파리하든, 아니든) 술을 ‘붓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는 않는다. 살아 있는 누이의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어버리면, 그 누이가 시적 화자에게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따라서,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누이는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리한 얼굴은 죽은 누이의 핏기 없는 얼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죽은 이의 시체에 대고 직접 술을 붓는 행위를 쉽사리 상상하지는 못하리라.(어떤 경우든, 시적 화자를 사이코패스로 만들지는 말자. 사이코패스인 시적 화자를 상정한 시는 대중의 공감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시적 화자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 죽은 누이의 무덤에 술을 붓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무덤에서 제(祭)를 지내는 상황인 것이다)

시리도록 허연
이 영하의 가을에
망초꽃 이불 곱게 덮고
웬 잠이 그리도 길더냐.
→ 시적 화자는 무덤 안에 있는 누이가 긴 잠을 잔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무덤 위에 핀 망초꽃을 이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편, 죽은 것이 분명한 누이를 잠을 자고 있다고 표현하는 시적 화자의 슬픔을 감안한다면(설마 시적 화자가 누이가 죽지 않고 무덤 속에서 자고 있다고 실제로 생각했겠는가? 3살짜리 애도 아니고...), ‘시리도록 허연 영하의 가을’이라는 표현이 시적 화자의 비애감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풀씨마저 피해 날으는
푸석이는 이 자리에
빛바랜 단발머리로 누워 있느냐.
→ 시적 화자는 누이의 무덤을 ‘풀씨마저 피해 나는 푸석이는 이 자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시적 화자의 슬픔과 삭막한 무덤의 모습이 조용된다 할 수 있다. 한편 누이는 죽었으니, 단발머리의 빛은 바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연에서는, 직전 연과 마찬가지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시적 화자의 슬픔을 읽어 낼 수 있다.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을 꺼내어
꺾끄러운 네 뼈다귀와 악수를 하면
딱딱 부딪는 이빨 새로
어머님이 물려주신 푸른 피가 배어 나온다.
→ 시적 화자는 헝클어진 가슴 몇 조각(=죽은 누이를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의 표상)을 꺼내 무덤 안에 있는 ‘뼈다귀’와의 악수를 한다. 물론 이 역시 시적 화자의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무덤 파헤칠 일 있냐? 그런데 여기서 누이의 뼈다귀를 ‘꺾끄럽다’고 하고 있다. 누이의 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

는 시적 화자에게는 펼쳐진 일이었으리라. 그렇게 누이와 ‘악수’를 하는데, 이빨 새로 피가 배어 나온다. 우리는 울음을 참을 때 입술을 깨물곤 한다.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물어만 울음을 참을 수 있었던 시적 화자의 슬픔의 무게를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적 화자가 이렇게 배어 나온 피를 ‘어머니가 물려주신 푸른 색’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피는 누이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난 것이기에, 시적 화자에게는 피를 누이와 떨어트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적 화자는 누이가 동복(同腹-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혈육)임을 상기하고, 생전 누이와 함께한 삶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가 ‘푸르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누이와 함께한 현실의 삶이 고달프고, 힘겨웠기 때문이라. 푸른색은 삶의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색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우울함을 표상하는 색이기도 하다.(영어 단어 Blue가 어떤 뜻을 가지는 지 확인하자.) 이 시의 분위기 상(특히 뒤에 나올 시적 화자와 누이의 삶을 고려하면) 푸른색을 긍정적인 이미지의 색채어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물구덩이 요란한 빗줄기 속
구정물 개울을 뛰어 건널 때
왜라서 그리도 **숟가락** 움켜쥐고
눈물보다 **짹짹한 설음**을 빨았더냐.

→ 시적 화자는 과거의 누이와 함께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요란한 빗줄기 속에서 개울을 뛰어 건너지는 시적 화자 본인과 누이의 모습을, 어린 시절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숟가락을 움켜쥐고’ ‘설음을 빨았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배가 고파오면 숟가락을 움켜 쥐고 뛰어다니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얼마나 슬펐다면 ‘눈물보다 짹짹한 설음’을 빨았던 것일까.

아침은 항상 우리 뒤편에서 솟아났고
맨발로도 아프지 않던 산길에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취**.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처럼
부딪히며 하구로 떠내려갔음에라.

→ 시적 화자는 과거의 자신과 누이에게 아침은 항상 뒤에서 솟아나는 존재였다고 진술한다. 하루의 시작이자, 그 자체로 희망을 읽어낼 수 있는 ‘아침’은 그들의 등 뒤에서만 솟아나는 존재였던 것이다. 등 뒤에 눈이 달리지 않은 이상, 시적 화자와 누이는 ‘아침’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둠만이 영원했을 것이다. 직전 연과 연결 지어 생각할 때, 일상에서 서러움을 느꼈던 그들에게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산길을 맨발로 다녀도 아프지 않았다는 진술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맨발로 다녀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산길을 자주 다녔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상식적으로 굳이 신발이 있는데 맨발로 산길을 다니지는 않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산길을 다닐 때 신을 신발 하나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과거의 시적 화자와 누이는 맨발로 산길을 다녔을까? 직전 연과 연결 지어 생각할 때, 그 이유는 ‘배고픔’일 것이다. 그 산길에 있는 ‘버려진 개암’, ‘도토리’, ‘반쯤 씹힌 취’는 ‘숟가락을 움켜쥐고 구정물 개

울을 뛰어 건너던’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존재였으리라. 그렇게 시적 화자의 기억 속 자신과 누이는, 마치 ‘질척이는 뜨물(국수를 씻어 내 부엌에 된 물) 속의 밥덩이’처럼 스스로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현실에 부딪히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의 현실을 감내해 가며 살아야 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는
 신경을 잃는 중풍병자로 태어나
 전신에 땀방울을 비늘로 달고
 쉼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음에라.

→ 중풍은 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되는 병이고, 따라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 시적 화자는 누이와 자신이 중풍병자로 태어났다고 진술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존재였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병을 가지고 태어난 시적 화자와 누이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쉼 목소리로 ‘어둠’과 싸웠다고 진술한다. 비록 본인들의 의도대로 순탄하게 삶을 살 수 없는 처지였으나, 그 처지를 극복해 내기 위해 치열하게(땀을 흘리며, 목소리가 쉴 때까지 소리 지르며) 어둠으로 표상되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왔던 것이다.

편안히 누운
내 누이야.
네 파리한 얼굴에 술을 부으면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이
이 못난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드는 것이 어인 까닭이나
 → 시적 화자는 다시 누이를 호명한다. 그런데 그 누이는 ‘편안히’ 누워 있다고 한다. 1연에서 처음 호명할 때의 누이와 지금의 누이가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그저 무덤 속에 누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누이가 ‘편안하게 누워있다’고 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시적 화자는 누이의 생전에 함께했던 기억을 반추했다. 그 기억 속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비참했다. 비참한, 희망이 없는 현실을 살다 죽은 누이를 떠올린 시적 화자는, 누이에게 죽음이 비참한 현실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편안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아가, 만약 누이가 죽어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이 드러났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누이가 편안하게 누워 있다고 느끼며 무덤에 술을 붓고, 튀어오르는 술방울을 보며 시적 화자는 눈물을 읽어 내었다. 시적 화자에게 이 술방울은, 무덤 속에 누워 있는 누이의 눈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누이와의 정서적 교감). 기실, 만약 누이의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녀의 혈육이 본인의 무덤에서 제를 지내는 상황에서 당연히 눈물을 흘렸으리라. 그 눈물이 스스로의 영혼을 휘감고 온몸을 뒤흔든다는 진술을 통해, 우리는 제를 지내는 시적 화자의 깊은 슬픔을 읽어낼 수 있다.

<감상 Point>

★**누이에게 술을 붓는 행위**: 누이의 무덤에 술을 붓는 것(=무덤에서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한 행위)

★**형클어진 가슴 몇 조각**: 죽은 누이를 생각하는 시적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상

★**약수**: 죽은 누이와의 정서적 교감

★**질척이는 뜨물 속의 밥덩이, 중풍병자**: 의지대로 살 수 없었던 시적 화자와 누이를 표상

★**눈물처럼 튀어 오르는 술방울**: 누이의 눈물, 시적 화자와 누이의 정서적 교감을 표상

★이 시는 기형도의 개인적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 시인이 9살일 때,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 가세가 기울었다.
→ 이 시에서 드러나는 시적 화자의 가난하고 비참한 과거

→ '신경을 앓는 중풍병자'

㉡ 시인이 중학생일 때, 바로 윗 누나가 비참하게 죽음

→ 누이의 무덤에서 제를 지내고 누이를 회상하는 시적 화자

→ <심화 1>

★이 시의 제목,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시는 신라 향가인 「제망매가(祭亡妹歌)」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제망매가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도록 하자.

(만약 이 시가 출제된다면, <보기>로 「제망매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제시되고, 제망매가와와의 비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 <심화 2>

<심화 1>

(전 략)

기형도의 두 살 터울 누나가 여고 2학년 시절 집 앞 논두렁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다. 그 누이는 집안 형편이 극도로 어려워 일시적이긴 하지만 기형도와 함께 고아원 생활까지 같이한 남다른 사이였다. 설상가상으로 2주 뒤 잡힌 범인은 남매가 함께 다니던 교회의 청년 신도였다. 당시 중학교 3학년생으로 사춘기 소년이던 기형도에겐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던 기형도는 이후 종교를 버렸고, 그 대신 염세적 실존주의 철학자라 할 쇼펜하우어와 키르케고르의 철학에 빠져들었다.

“형도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이를 위해 쓴 시라며 ‘가을 무덤-제망매가’를 보여주더군요. 그 시를 읽는 순간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제 평생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형도는 울진 않았지만 눈에 눈물이 가득...”

감정이 복받쳐 올라 안경을 벗고 붉게 물든 눈자위를 닦던 그는 당시 기형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난 그날 이후 정서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기형도 누나의 죽음은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구체적 진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후 략)

『기형도 시의 원점은 1975년 5월 16일 누이의 죽음에서 찾아야』

(기형도의 절친한 친구였던 소설가 김태연과의 인터뷰, 주간동아, 2018) 중에서

<심화 2>

생사로는

생사길은

예 이사매 저히고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난다 말스도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닐고 가느 닐고

못다 이르고 여찌 감니까?

어느 그술 이른 부르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뿌러질 님다이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흐든 가재 나고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곧 모드온더

가는 곳을 모르구나

아으 미타찰애 맛보올 내

아야, 미타찰에서 만날 나

도 닷가 기드리고다

도 닷야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

「가을 무덤 - 제망매가」와 「제망매가」의 공통점

㉠ 의문의 표현, 영탄의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주된 내용으로 시상 전개

「가을 무덤 - 제망매가」와 「제망매가」의 차이점

㉠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는 누이의 생전 모습이 제시됨
↔ 「제망매가」에서는 제시되지 않음

㉡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는 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이 제시됨
↔ 「제망매가」에서는 제시되지 않음

㉢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는 내세에 다시 만나자는 기약이 제시되지 않음
↔ 「제망매가」에서는 제시됨

㉣ 「가을 무덤 - 제망매가」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음
↔ 「제망매가」에서는 화자의 슬픔이 종교적으로 승화됨
(불교적 세계관-거자필반(去者必反))